Q 정부는 100만 청년을 무장하려 했다.

A 중공군의몇 차례 공세를계기로한국국민들은국가와민족의 운명을좌우하는엄숙한현실을직시하고모두가스스로 들고 일어나힘을 보태려고했으며, 정부는100만 청년을무장시켜중공군을격퇴시키려하였다.

한국국민들의 결전의지

‘1·4후퇴’의 위기를 넘기면서 37도선에서 간신히 전선의 안정을 찾았으나, 중공군의 연속적인 공세에 의해 전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전국이 반전되었다.

한국정부는 국군과 유엔군이 전선에서 위기에 처하게 되자 국방장관이 “이들의 침략을 총력전으로써 분쇄하고 가가호호 총궐기하여 도끼와 낫이던 호미와 괭이라도 들고 나가 싸웁시다”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비장한 결의를 다졌다.

이승만 대통령도 전쟁이 우리의 자유 독립을 위한 최후 결전 단계임을 선언하고, 국민총력전으로 이를 극복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어 애국단체 총연맹 주체로 서울운동장에서는 중공의 침략을 물리치

고 통일대업을 완수하기 위한 국민결의 대회가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과 미국정부에 대해 즉시 전투에 참가하여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100만의 애국청년에게 무기를 지원해 달라고 촉구하였으며, 이 대회에 참가한 청년들은“ 우리는 반공투쟁에 총 매진하고자 하며 6·25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려면 완전무장이 절대로 시급하다 ”는 결의문도 채택하였다. 이와 아울러 전국 각지에서 전개된 멸공무장국민대회에서는 “ 우리의 힘으로 이 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장년은 총칼을 들고 국민은 정신의 무기를 들고 내 강토를 지키자 ”는 내용이 결의되었다.

이때 소집영장을 기다리던 청년들 사이에는 자진입대를 간청하는 인원이 증가하였고, 이들 중에는“ 나는 화랑도의 정신을 갖고 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이다 ”라는 혈서를 쓰고 지원한 사람들도 있었다.

대동청년단의 무장 시도

국가의 위기와 통일한국의 가능성이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청년단원들을 무장시키기로 결심하고 미국에 장비 제공을 적극 요청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사절단이 미국무부를 방문하여국내의 상황을 설명한후 미국의 지원을호소하였다.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이임 인사차 백악관을 방문하게 된 장면 대사도 직접 트루먼 대통령에게 대한청년단을 무장시켜 줄 것을 제의하였다. 그는“ 기초 훈련을 받은 100만 명이 무기지급을 기다리고 있으니, 미국

많은 청년들이 궐기대회에 참여하여 미국에 무기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

의 조속한 무기지원을 간곡히 부탁한다 ”고 호소하였다.

이 무렵 유엔군은 회원국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획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국 역시 추가 파견할 가용부대가 없어 전력을 보강할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그래서 미 국무부는 그 대안의 하나로써 국군을 확장시키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유엔군의 추가지원 필요성과 한국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미 국방부와 합참본부가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 문제를 담당한 합동전략기획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한국군 증강 계획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그 위원회는 무기의 가용 재고를 조사한 후 7만 5,000명~10만 명의 한국인을 특수부대로 조직하여 후방 병참선의 경계 병력으로 활용하고, 또 일부는 적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게릴라로 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이 오히려 이에 반대하였다. 그의 반대 이유는 기존부대의 임무수행 상태가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부대를 창설한다고 해서 크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

조국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전쟁터에 뛰어든 청년 학생들

다. 그는 대한청년단을 기존부대의 보충요원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추천하였다.

국민방위군 편성과 해체

이에 한국정부는 국가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총력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중공군과 맞서 싸우려면 많은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소요병력을 조속히 동원할 목적으로 독자적으로 국민방위군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 및 육군본부는 국민방위군 설립법을 마련하고 먼저 방위군 편성을 위한 사령부를 편성하였다. 국민방위군사령관에는 민간인인 대한청년단 단장 김윤근을 단번에 준장으로 임관시켜 임명하였다. 사령부의 몇몇 간부와 일부 교육연대장, 그리고 극소수의 기간요원만 현역이고, 나머지 지휘관은 모두가 주로 청년단 출신에서 급조된 방위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며 긴 행렬을 지어 내려가고 있는 국민방위군 (1951. 1)

군 장교로 충원되었다.

동 사령부는 즉시 전국적으로 병력을 응모하기 시작하였다. 불과 얼마지나지 않아 전체 병력이 50만여 명에 달하였다. 이때 국민방위군은 대체로 군 현역에 준하여 편성되었고, 사령부 예하에는 교육연대가 전국 51개소에 설치되어 17세부터 40세까지의 장정을 수용했다. 그리고 장병들의 대부분이 농촌출신이었고, 또 장교 중에는 정규군 기피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한창 창설작업을 하고 있던 국민방위군은 중공군의 3차 전역에 따라 남쪽 후방지역으로 전면적인 이동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급 간부들이 방위군의 보급품을 부정으로 착복함으로써 전대미문의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일부의 간부들이 정치권과 결탁함으로써 야기된 것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명무실하게 된 국민방위군은 애석하게도 그 창설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해산되었다.

정부는 이 사건을 무마하고 다시 전력을 증강하기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기울였다. 부정한 방위군 간부들을 총살하여 엄벌로 다스리는 한편 전 국민적 총력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미국으로부터 보다 강력한 지원을 얻기 위하여다각적인 외교활동을 강화하였다.

생각해 봅시다!!

1. 중공군 참전 이후 한국군 증강을 어떻게 계획하였는가?
2. 국민방위군의 작전투입은 왜 무산되었는가?